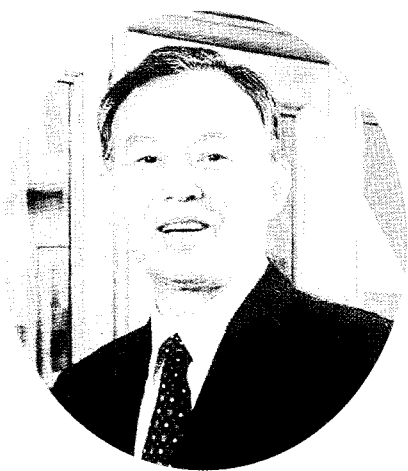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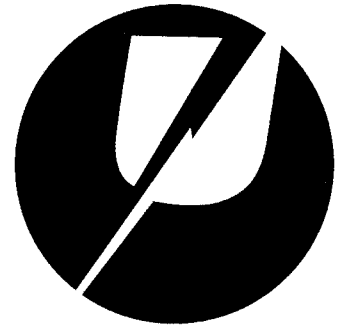


앞선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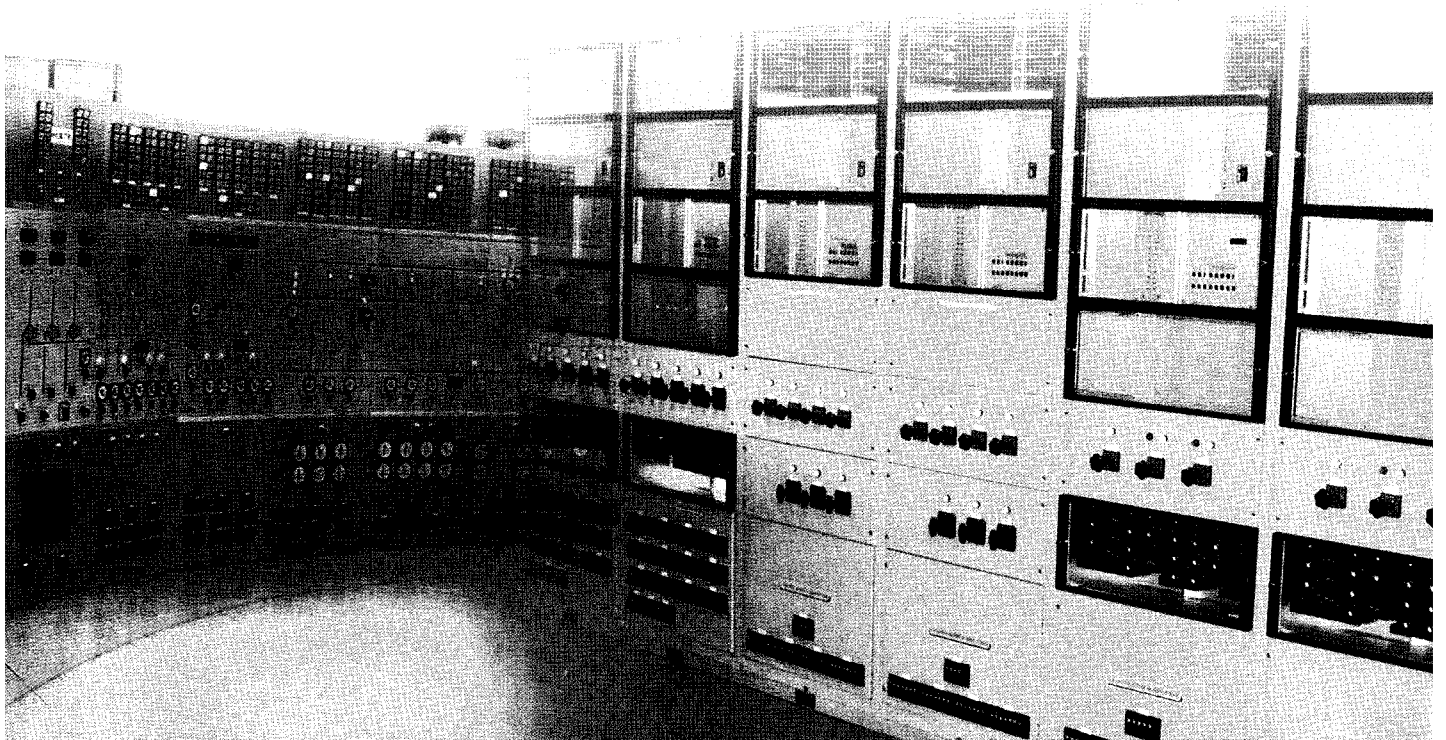
유호전기공업(주)



대표이사 한재두

중전기 제조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험잡한 도시를 벗어나 나지막한 산과 들 사이로 발을 일구는 농촌풍경과 어우러진 평화로운 회사 전경, 그곳에 해맑고 진지한 모습으로 맡은 바 업무에 분주한 직원들의 모습에서 어언 창립24주년을 훌쩍 넘긴 중견업체 유호전기공업(주)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유호전기공업(주)는 지난 1979. 7. 5 창업 이래 현대문명사회에 기여하는 중전기 제조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목표 아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90여 명의 임직원으로 IMF이후에도 연평균 매출 194억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중견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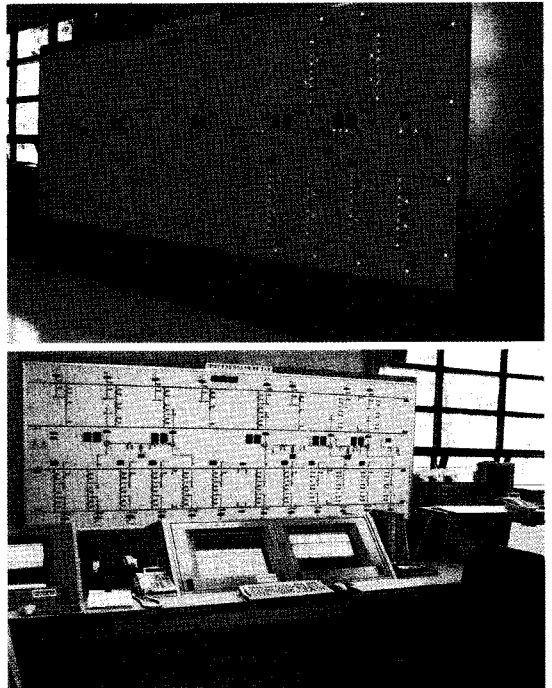


연구개발만이 경쟁력의 핵심 ⇨ 기술 중시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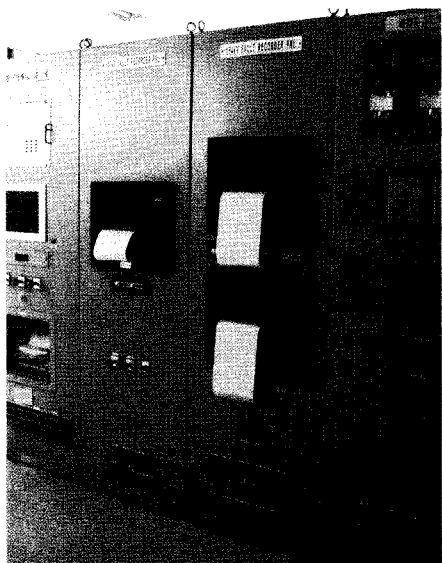
'79년 창업원년부터 KEPCO로부터 『보호계전기반 국산화개발업체』로 선정되고 “기술중시경영” “고객중심의 품질”이라는 경영방침처럼 기술력없이 회사발전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앞에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80년 국내 최초로 『MOSAIC BOARD PANEL 및 DC접지검출 계전기』의 제작납품을 시작으로 345/154KV 각종 계전기반을 제작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키워 '91년에는 호주세계중전기제품전시회에 자체 개발품인 『배전선로용 22.9KV Digital 보호계전기』를 출품하여 국내외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 당시 늘어나는 연구개발 수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94년 2월 연구소를 설립하고 공장을 확장하여 현재의 양주공장으로 이전하고 미국의 G.E사, Nutherm International사, 일본의 Kcc사, Kinkei System사, TM. T&D사 등과의 기술 제휴를 통한 공격적 경영을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제휴노력과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어 그간 22.9KV Digital 보호계전기(한전용, 민수용) 개발, 고장기록장치반 국산화 개발, EMS-RTU, M-RTU, 154/345/765KV 보호계전기반 및 집감반을 자체 개발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보았으며, 또한 연구개발의 권리보전을 위해 『리액턴스 효과를 제거하는 선로보호용 거리계전기법』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에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원격장애 분석시스템』에 대해서도 현재 특허출원중에 있다.



● 154KV 345KV 765KV 집중감시제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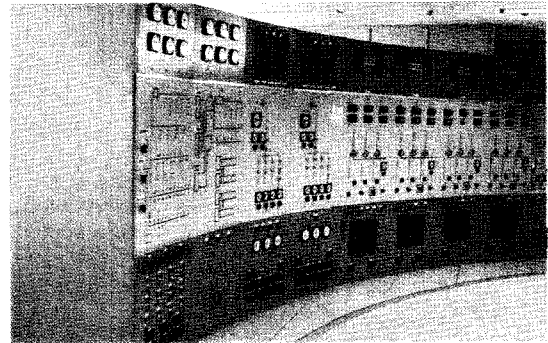


고객중심의 품질과 제품안전 ⇨ 고객만족 경영

기업경영에 있어서 앞선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객이 만족하는 질 높은 제품생산력일 것이다. 유호전기공업(주)는 품질목표달성을 위해 사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도 정확한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에서부터 불량률 제로를 이루고자 질 높은 부품의 사용과 제조초기단계에서의 부품 품질검사, 제조공정단계마다 시험검사와 완성품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제품운용요령 교육 및 완벽한 A/S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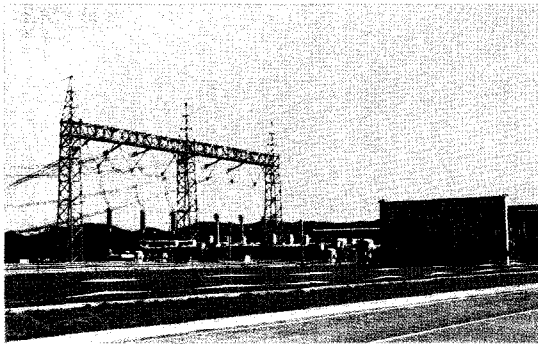
● 전력계통고장 및 동요기록장치반

이러한 품질향상 노력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화력발전설비제조업체(R1등급), 수·화력발전설비저압차단기반(R3등급), 원자력발전설비제조업체(T등급)과 KSA/ISO9002품질인증(능률협회), ISO9001확장인증, 우수단체 표준인증(전기조합)을 통해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과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여 글로벌화되어가는 기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에 부응하고자 ISO14001과 KOSHA18001의 인증을 추진중에 있다.



◎ MOSAIC PNL

노사가 따로 없는 가족적인 분위기



◎ 변전소 전경

한재두 사장은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사원의 만족 없이는 안된다는 믿음으로 상호 존중하고 협동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인화단결”을 평소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의식은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유호전기공업(주)가 창업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중소기업의 성공적 경영에 중요시되는 인력관리에 있어 한재두 사장의 “인화단결”을 중시하고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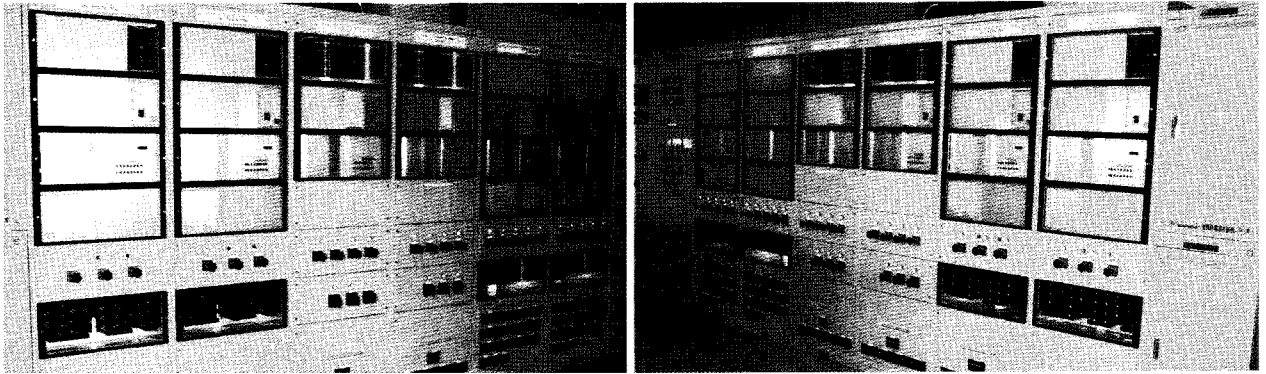
실제로 유호전기공업(주)는 어느 중소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근무조건과 사원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노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5년전인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법정공휴일의 휴무, 연봉제 실시 등 선진근로조건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숙사와 급식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원단체체육대회 개최 및 산악회 등 동호회지원과 경조사

비 지원 등 사원복지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보다 많은 시책의 도입을 강구 중이다.

회사발전의 근본적 모체는 윤리경영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가 기업의 최고 가치임에도 그에 앞서 인화단결을 강조한 한재두 사장의 경영마인드는 아마도 윤리경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IMF의 한파는 전반적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유호전기공업(주) 또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도 고등분담차원에서 단 한 명의 인원감축도 않는 반면 도리어 무차입경영, 투명경영 등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호기로 삼고자 노력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많은 기업인들이 주목할 부분으로 이러한 윤리경영은 모범납세업체표창(관할세무서장, 재경원장관), 중소기업우수업체표창(전경련), 전국상공인대회모범업체(국무총리), 중소기업모범업체(대통령) 등 수많은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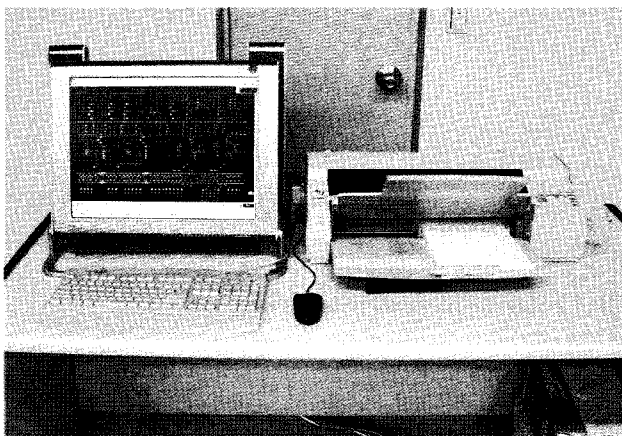


○ 154KV 345KV 765KV 보호계전기반 ○

앞선기술, 고객만족, 미래가치창조

한재두 사장은 최근의 경기침체를 제2의 도약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해외기술제휴사와의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최근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연구소장 인력을 보강하여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소홀했던 전기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일반소방공사 등 공사업에도 영업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앞선기술과 고객만족만이 미래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한재두 사장은 지속적 자기개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기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 원격자동운전시스템



○ 원격소장지